

테마칼럼

여성세계

신지브리콜

경제의 눈

문화칼럼

광주 세계여성 평화포럼에 거는 기대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수난의 광주가 여성의 미래 비전, 평화운동의 성지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광주에서 세계여성평화포럼(6월26일-28일)이 열린다는 소식이 반갑다. 다른 지역보다 광주에서 논의되는 여성과 평화이야기는 적절하고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여성사에 있어서 광주는 각별하다. 광주는 YWCA 역사를 통해서 여성사의 뿌리로 기록된다. 근대 개화기로부터 시작해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광주는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의 맥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광주에서 여성과 평화이야기를

세계여성평화포럼이 광주에서 열린다고 했을 때 광주의 이런 수난의 역사가 새로운 비전으로 녹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가슴 가득히 퍼졌다. '지역화와 세계화'라는 여성계의 최근 관심사와 일맥 상통하고 있는 행사로 광주라는 지역성과 어울어진 여성과 세계평화는 좀더 비중이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세계여성평화포럼에 바란다. 첫째 이 행사의 준비위원회 조직을 전국적인 위상을 고려해 만들기를 바란다. 이 행사는 이미 광주만의 행사가 아니다. 평화포럼의 가치를 높이고 향후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주내부의 준비위원회는 별도로 대표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조직위 중심으로 과감하게 끌어들이는 추진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두 번째 우리나라 여성운동과 여성학의 국제적 역할을 한단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는 3천명 이상의 규모로 열린 세계 여성학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고, 세계 여성학계에서 '여성학의 성지'같은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여성학계의 역할을 충분히 흡수하고 활용해서 수준있는 논의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치열해야 할 것이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채 해외 유명인사 초청해서 형식적으로 치루는 이름만 번지르르한 국제행사는 이제 아무 예게도 주목받지 못한다.

세계를 감동시키는 계기가 돼야

셋째, 학술토론 외에 문화 행사에도 '여성'과 '평화' 그리고 '광주'라는 핵심 키워드가 적용된 광주의 어머니 정신을 대표할만한 문화 행사와 대화 행위를 더 중요하게 했으면 한다.

준비기간이 짧지만, 광주는 남도 문화의 중심이고, 민중문화의 진원지이고, 여성문인들이 가득 넘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광주 여성들의 문화적 역량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어머니 합창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대회 취지와 개념적으로 잘 결합된 문화 행사를 통해 세계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의미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지길 바란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감금에 성폭행까지... '조폭' 수준 학교폭력

학교폭력 양상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폭력이 집단적으로 자행되고 감금에 성폭행은 물론 폭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는 등 그 수준이 조직폭력배 뺨칠 정도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보성 학교에서는 고교 1학년 여학생 8명이 평소 애호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급생 1명을 3시간여동안 감금해 담뱃불로 지지고, 신고하고 하지 못하도록 폭행장면과 피해학생의 지맛속을 동영상 촬영했다. 또 광주에서는 고교 1학년 여학생 6명이 인터넷에 성폭행 사탕을 찾았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남학생들을 시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성폭행하게 했다. 더욱이 중학생까지 낀 이들은 피해 여학생을 건물 지하실에 3일간이나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이 단순폭행 정도가 아니라 조폭 수준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학교폭력 근절에 다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김홍업씨 4·25보선 전략공천 재고해야

민주당이 김홍업씨를 4·25 무안·신안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 반발로 뒤늦게 지역 여론도 부정적이다. 김씨의 출마에 반대했던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공천을 비난하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김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다.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김씨를 전략공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여론은 비판적이다. 김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힘입어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도 비판여론을 의식해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당의 공천이 민주적 절차보다는 당리당략과 파당적 셈법에 의해 결정되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무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씨의 출마는 김 전 대통령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김씨는 출마를 재고해야 한다. 민주당도 전략공천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씨는 김홍업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고항 거제도에 2년 전을 선고받고 1년6개월여동안 복역했다. 그 후 사면복권돼 출마에 법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철수



“왜 디스크 수술을 하는데 심장조음과 검사를 합니까?” “CT를 찍었는데 MRI를 꼭 찍어야 합니까?”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하는 이유를 묻곤 한다. 검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환자에게는 비슷해 보이고 비싸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떠한 병이든 환자마다 증상과 상태가 달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위

그러나 디스크 내부, 근육, 신경 등의 변화를 검사하기는 어렵다. 검사 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강력한 자석을 이용한 컴퓨터 촬영장비로 컴퓨터 단층 촬영(CT)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신경계통 이상, 척추디스크 질환, 척추종양 등의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뇌혈관 수술을 한 사람들은 검사하기 어렵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검사 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된다.

기고

강진원



후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 3대 미향'과 '오페라하우스'를 떠올리며 국제도시 시드니를 연상한다. 이같은 시드니의 명성에 가려 한때 쇠락의 길을 걸던 도시가 멜버른이다. 정치, 경제, 문화가 시드니로 집중되고, 1996년 올림픽 유치에 실패했으며 2000년 올림픽마저 경쟁도시인 시드니로 확정돼 멜버른은 도시의 장래에 대해 크게 고민했다. 그 결과 올림픽 유치 대신 거의 2~4배까지 치솟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1년간이나 갈

단했다. 그 결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2005년에는 약 102억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약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호주 F1 대회는 2005년 기준 약 1천 3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전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현지에서 경험한 바로는 대회 기간 중 모든 숙박 시설은 예약이 만료되었고 비몽사몽 경주시의 2~4배까지 치솟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호주 F1 대회는 매년 30만 이상을 동

2007 호주 F1대회와 2010 전남 F1대회

은 나라 다른 주정부의 수도 아드레이드에서 행해지던 F1대회를 빼앗아오는 등 공격적인 스포츠와 축제 유치로 통해 '1년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라는 명성을 얻고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멜버른에서 최근 2007 호주 F1 대회 개최안이 4일간 펼쳐졌다. 결승전에는 10만여 명의 관중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흥분 그리고 출발전의 팽팽한 긴장감은 F1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2010년 우리 전남도에서 개최될 F1에 대해 많은 이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부러움과 감탄으로 다가왔다. 멜버른에서 1996년부터 시작된 호주 F1 대회는 초기 일부 반대론자의 주장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대회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비용을 초과하며, 주민의 공익 이용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

원하는 스포츠 이벤트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유럽과의 시차로 인해 F1대회를 보지 못하는 10여명의 잠재 유럽 관중을 위해 유럽의 낮 시간대에 맞춰 경주를 야간에 진행시킬 계획이다. 두드러진 현상은 일반 관중의 급증이다. 표를 구하기 위해 멜버른 시내 판매소를 방문했을때 일반인 관중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2010년 전남 F1대회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대회이다. 2010년 세계적인 스포츠계의 축제를 훌륭하게 치루기 위해 우리지역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개최될 F1대회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하고 추진하여 어느 나라 F1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전남도 기업도시기획단장>

CT 찍었는데 MRI를 꼭 찍어야 합니까?

해서는 여러 종류의 검사들이 필요하고, 게다가 수술을 앞둔 환자라면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척추 디스크 수술을 앞둔 경우라면 정확한 진단과 수술 계획을 위하여 척추 엑스레이(X-ray), 컴퓨터 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필수적인 검사에 해당된다. 기본적인 저렴한 검사인 척추 엑스레이(X-ray)는 뼈의 이상 유무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로 뼈와 관절, 뼈의 운동 상태는 잘 볼 수 있지만 근육, 디스크, 신경 단면은 보기 어렵다. 컴퓨터 단층 촬영(CT)은 엑스레이(X-ray)로 보지 못하는 척추의 단층면이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에서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연성디스크와 골성디스크의 구별이 가능하며, 오래된 변성디스크, 뼈, 관절까지 잘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술이 필요한 뼈의 골다공증 유무를 확인하는 골밀도검사, 증상이 나타난 곳을 찢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층영상진단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초음파를 이용해 심장 기능 확인 및 동정맥 혈류 이상 유무를 검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척추 디스크의 수술 시 마취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이지만, 척추 디스크 수술도 정확한 진단과 수술 계획이 수술 후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가 필요하다. 필요없는 검사를 한다는 오해 보다는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상호신뢰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광주우리병원 원장·의학박사(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시간 때우기 전략 학교 봉사활동, 이대론 안된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친구와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하지 않고' 고교 졸업 전에 채워야 할 의무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라며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봉사활동을 허락해 주는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이 없어 실패하는 일이 많았다.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이는 나에게 부탁해 남조된 봉사활동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렵게 봉사활동할 곳을 찾는다 해도 그

것이 전인교육에 입각한 봉사활동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간때우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때가 많았다. 물론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하고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이전에 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영하·여주시 봉강동

설문조사 믿고 응했더니 함부로 개인정보 유출 해서야

고등학교 3학년인 아이 때문인지 1주일에 한 두통씩 학원 홍보물이 날아오고 전화도 자주 걸려온다. 어떻게 내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인지,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여간 깨립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졸업한 중학교, 심지어 동생도 고등학생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학원에 함께 보내면 학원비를 깎아주겠다고 한다.

자녀 친구는 자신의 학력평가 점수까지 아는 전화통을 받았다고 한다. 예전에 모 학습지 설문조사에서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에 들어온 뒤에도 비슷한 이유로 개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유출됐다면 어느 어떤 조사를 믿고 응해줄 수 있을까. <전연희·광주시 동구 충장로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무등에서 완행열차에 오르면, 종착역은 광주. 집단 투숙한 여관 문 앞엔 열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좁은 방에선 화투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더러는 종장로 학생회관 골목으로 틀레 빠져나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신다. 다음날, 시험을 대충 본 후, 하행열차에 몸을 싣고 잠을 청한다. 어디선가 들려오던 애달픈 노랫소리. '하얀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예쁜 미소 짓지 만~'.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이다.〉

트라이앵글



70년대 후반, 필자가 예비고사를 보던 시절의 풍경 한 토막이다. 예비고사 성적은 5~10%밖에 반영되지 않아 본고사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대학 경쟁률은 그리 심하지 않았고, 과외 열풍도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요샌 '죽음의 트라이앵글' (triangle)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내신-수능-대학별 고사'로 계속되는 '삼각형'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